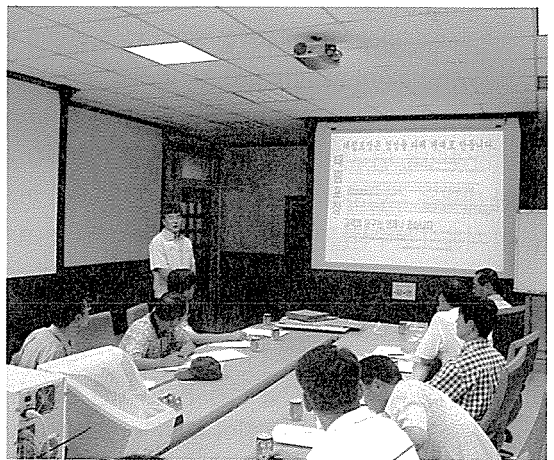




농관원 시험연구소,
태림포장 방문 혁신활동

지난달 31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소장 김상범)는 혁신활동의 일환으로 농산물표준규격 중 비중이 가장 큰 골판지상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국내 최대의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제조업체인 경기도 시흥시 소재 태림포장공업(주)(대표이사 고삼규)을 방문하였다. 이번 방문단을 이끌고 참여한 시험연구소 김상범 소장은 “정부의 행정은 결국 국민을 고객으로 삼아 펼치고 있는 만큼, 민간기업에서 강조되고 있는 고객중심 사고를 적극적으로 채용해야하고, 이러한 취지에서 농산물포장 규격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골판지상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방문하게 되었다”고 말하고, “골판지상자의 생산과정과 골판지상자의 규격화 및 재활용 현황을 접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농관원의 방문단을 맞은 태림포장의 조문환 부사장은 “많은 골판지포장 기업 중 우리회사를 선택하여 방문해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농관원에서 정한 농산물 표준규격대로 설계하는 사례가 많아 매우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관원 직원들의 급작스런 방문 소식을 접하고 합류한 골판지포장조합 김진무 전무이사는 “국가공무원이 관련 업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산업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살피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여러 가지 분야 중 골판지포장 분야를 첫 방문 대



상으로 선정하신 점에 감사드립니다”고 말하고, 골판지포장 업계의 현황과 비전에 대해 간단한 설명을 하였다.

이날 방문단은 김상범 소장의 유춘철과장 등 13명과 서울시청 직원 2명으로 구성되었으며, 태림포장의 기업 현황과 골판지포장 생산기술에 대한 설명을 회사 김윤중 팀장으로부터 들은 후 공장투어에 나섰다. 골판지상자 설계 및 디자인실에서부터 변형상자 제조설비 및 골판지제조기, 원지창고 등을 살펴본 방문단은 골판지상자 제조업체는 막연하게 소규모 수준으로 생각하였던 것은 매우 잘못된 선입견이었다고 설비와 공장규모 등에 있어 놀라움을 표시하였다. 공장투어를 마친 일행들은 혁신활동의 일환으로 질의 토론회를 하는 자리에서 보관 종이 많아야 하는 이유와 골판지의 재활용율, 농산물포장재의 인쇄경향과 경쟁이 치열한 골판지포장업계의 블루 오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수준 높은 질문과 토론을 벌이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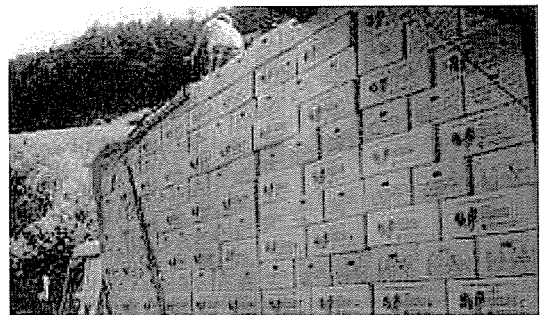
무, 배추 포장화사업 10년 만에 재추진, “사업 정착에 1,500억 시장 창출 기대”

농림부는 지난 1996년도에 추진해 왔었던 무, 배추의 포장화



사업을 10년만에 적극 재추진할 계획이다. 농림부의 추진 과정을 살펴보면 2007년도부터 무, 배추의 포장화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하여 대학연구소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대로 연말까지 포장화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이와 연계하여 서울시 농수산물관리공사에서는 도매시장의 쓰레기를 저감시키고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관련 단체 협의회를 개최하고 배추 포장화사업을 적극 추진기로 결의한 바 있다.

그동안 무, 배추 포장화 시범사업은 지난 1996년도에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 주도하여 정부의 시범사업과 포장 보조금 지원정책까지 이끌었으나, 업계 내부의



의견 불일치로 유아무야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10년이 지난 상태에서 재추진된다는 의미가 있다.

이에 대하여 골판지포장조합은 배추의 골판지포장화가 정착된다면 최대 1천 5백억 원의 신규수요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업계의 적극적인 동참을 통해 정부의 배추포장화 사업에 일조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농림부, 유통인 연합회 등과 협의를 지속기로 하였다.

아울러 골판지포장조합은 지난달 30일 농림부의 요청을 받고 배추상자의 최적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설계에 착수하여 결과물이 나오는 대로 농림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씨감자포장용 골판지상자 품질관리 회의 개최

골판지포장조합은 지난달 25일 단체적 계약 체결한 씨감자포장용 골판지상자의 원지표준화 및 품질 최철 설계를 위한 품질관리회의를 개최하였다. 씨감자 상자를 생산 공급할 (주)광신판지 등6개사의 담당자가 참석한 이

날 회의에서 각 사별로 생산되는 골판지상자의 표면 색상이 다르고 발수능력 R4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합 원지의 표준화가 절대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최적의 원지조건을 설정하여 공동구매 방식 등을 적극 검토하기로 하였다. 금년도 씨감자 상자는 약 40만대로 9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대관령지역에 납품할 예정이고, 가격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 정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골판지포장조합, 삼보판지(주), 태림포장공업(주) 『2005 서울국제원예전시회』 참가기로...

2005년 10월 12일(수)부터 10월 15일(토)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농림부 주관으로 개최되는 『2005 서울국제원예전시회』 우리조합 및 조합원사인 삼보판지(주),

태림포장공업(주)이 참가 한다

이 전시회에서는 온실·제어기술, 시설 자재, 종자·종묘, 유통기술, 벤처, 포장관련 물품들이 전시되며, 원예전문수출단지, 과수협회, 영농조합법인 등 전국의 원



예 생산농가, 농업기관 등에서 대거 참관한다.

우리조합은 전시동안 골판지포장제품의 우수성을 홍보, 신 수요를 창출할 수 있도록 조합원사의 판매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중국골판지포장산업관련 바이어를 초청, 우리 골판지포장업체와 교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골판지포장산업 청년채용패키지사업 올해도 순조롭게 진행 중

한국골판지포장공업협동조합(이사장 류종우)에서는 중소기업청지원으로 추진중인 청년채용패키지사업을 2004년에 이어 올해도 추진 중이다.

현재 진행 중인 교육기관은 신일직업전문학교에서 20명이 연수중이며, 올해 초부터 중순까지 신성대학교에서 23명, 순천청암대학교에서 34명이 집합교육을 수료 하였으며, 이 중 30여명이 현장연수를 진행하고 있다.

청년채용패키지 사업이란 실업자의 취업연계 지원을 위해 만 29세이하의 미취업자 및 실업상태가 1년 이상인 35세 미만의 1년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미취업자 및 신봉자를 대상으로 1개월이상 집합교육 연수한 다음, 3개월간 기업에서 현장연수 실시 후, 취업으로 연계시켜주는 지원 사업으로 집합교육연수시 연수생에게 30만원의 수당과 기업연수시 50만원의 연수수당이 지급된다.



**한국수출포장공업(주),
e-Manufacturing 구축 우수기업 선정**

중소기업청(청장 김성진)과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원장 양해진)은 생산설비정보화(e-Manufacturing)사업 참여 중소기업 중 한국수출포장공업(주) 등 5개사를 지원 성과가 우수한 기업으로 선정하였다.

e-Manufacturing은 생산현장의 정보(설비상태, 공정의 부하상태 등)를 실시간으로 집계·분석하고 생산공정을 제어하여 작업자 및 경영자의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설비의 가동률 향상에 따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번에 선정된 한국수출포장공업(주) 등 5개사는 현장의 생산관련 데이터 도입시간이 평균 84.1% 단축되고, 제조 소요시간, 제품출고시기 등의 정확성이 45.8% 향상되고, 제품(원부자재) 재고율이 38.7% 감소되는 등의 매우 높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정보화경영원은 우수기업의 생산현장을 생산정보화 성공사례 견학의 장으로 활용하고, 성공사례발표회 및 우수사례집발간 등을 통하여 우수사례 중소기업의 홍보와 함께 생산정보화 모델을 보급·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 e-Manufacturing 한국수출포장공업(주) 도입효과 >

우수기업명	업종	주생산품	도입시스템	도입효과
(주)한국수출포장	제지(편지)	골판지원단, 골판지상자	생산스케줄링 시스템	- 예측정확도 70% 향상 - 고객납기시간 53.3%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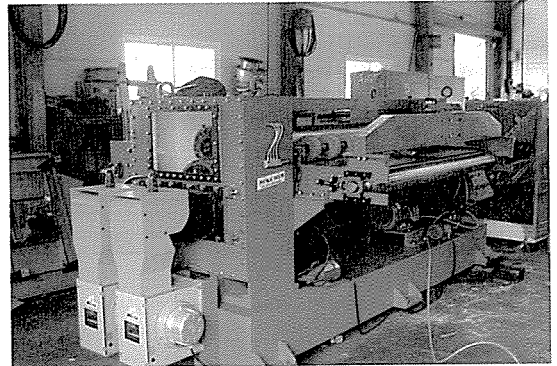
**KC TECK - 국내 최초로 분당 300M까지
처리할 수 있는 N.C CUTTER 개발**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에 소재한 K.C TECK에서는 1여년 개발기간을 걸쳐 AC서보 MOTOR 15kw 3EA를 직접 연결, 헬리칼 기어를 사용하여, 저소음 최신기계를 개발 완료하였다.

특히, 이 기계의 짧은장 처리는 해외기계와 어깨를 견줄만한 성능이며 405mm일때 60~70m/min, 600mm 일때 150m/min 까지 가능하며, AC서보 MOTOR 4EA까지 부착하면 300m/min 까지도 가능하며, 패드 작업 시 탁월한 성능 발휘 할 수 있다.

또한 기계에 자체 연마장치가 부착되어 있어 칼날을 분해하여 연마를 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앴으며 기계 이전 설치 시 좌 방향, 우 방향에 관계없이 설치 가능하며 진입 및 배출 콘베어를 분리하여 조정 가능토록 설계되었다.

현재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미광판지에 동 기계(AC서보 N.C CUTTER)를 설치 완료하여 가동 중이다.



조합원사 인사이동

- (주)동진판지 -
2005년 9월 1일
양희철 영업부 차장 입사

- 유니패킹(주) -
2005년 8월 1일
최철호 관리이사 입사

